

P . R . O . G . R . A . M

김다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F. Schubert (1797-1828)

Fantasy in C Major, "Wanderer," D. 760, Op. 15 (1822)

- I . Allegro con fuoco ma non troppo
- II . Adagio
- III . Presto
- IV . Allegro

Intermission

L.v. Beethoven (1770-1827)

Sonata No. 31 in A-flat Major, Op. 110 (1821)

- I . Moderato cantabile, molto espressivo
- II . Allegro molto
- III . Adagio, ma non troppo – Fuga(Allegro ma non troppo)

S. Rachmaninoff (1873-1943)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 42 (1931)



Kim Da Jeong

김다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Piano Recital

2014.11.10 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주관 아트뱅크코리아 공연문의 051.442.1941

Kim Da Jeong Piano Recital

김다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F. Schubert
L. v. Beethoven
S. Rachmaninoff

2014. 11. 10 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주관 아트뱅크코리아 후원 부산예고,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북 텍사스 주립대학교 동문회
특별후원 부산 MBC M-Dremers 공연문의 051.442.1941 입장료 전석 2만원 (학생할인 50%)

Kim Da Jeong

Piano Recital

Piano 김다정

화려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을 가진 피아니스트 김다정은 부산예고,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고, 2006년 도미하여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North Texas (북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피아노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학시절, 실기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였으며, 음악교육신문사콩쿨, 한국원로교향악단 콩쿨, 경희대학교 콘체르토 장학콩쿨에서 입상을 하며 음악적 기량을 보였다. 또한, 우수 신인연주자로 선정되어 음악신문교육사 신인음악회에 출연하였다.

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Eugen Jochum의 딸이자 Edwin Fischer의 제자인 Veronica Jochum을 사사하였다.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 Teaching Fellowship으로 Keyboard Skill Class를 가르치면서 박사공부를 하였고,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인 Dr. Pamela Mia Paul을 사사하였다. University of North Texas 재학시절, COM Stark/Scionti CPiano Scholarship, Academic Achievement Scholarship, USC Scholarship등을 수상하였고, 미국 대학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Honor Society의 멤버로도 선발되었다.

또한, Dr. Elvia Puccinelli의 지도하에 성악반주를 전공으로 하여, 많은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하며 음악의 폭을 넓혔으며, Busan Music Festival, Beij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ternational Keyboard Institute & Music 등 다양한

음악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음악적 깊이를 더해갔다.

2013년에는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20세기 피아노 음악을 가르치는 교육적 방법>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현재 부산예술중학교와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중인 피아니스트 김다정은 아코르 앙상블, 부산 피아노 듀오협회, 인천 피아노 협회 멤버로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중들과 소통할 것이다.

논문: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20세기 피아노 음악을 가르치는 교육적 방법: Logan Skelton의 Civil War Variations을 치기 위한 등급별 (초급, 중급, 고급) 레파토리 (An instructional approach to introducing twentieth-century piano music to piano students from beginning to advanced levels: A graded repertoire for mastering the challenges posed by Logan Skelton's Civil War Variations.)

사사 : Dr. Pamela Mia Paul, Veronica Jochum, 백혜선, 안소연, 김레다, 강지영

연주

- 2014. 10. 제 48회 부산 피아노 듀오협회 정기연주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2014. 07. 아코르 앙상블 제 6회 정기연주회, 세종체임버홀
- 2014. 06. 북 텍사스 주립대 동문 음악회, 영산아트홀
- 2013. 10. 박사 렉처리사이틀, 북 텍사스 주립대학교 리사이틀홀
- 2011. 06. 박사리사이틀, 북 텍사스 주립대학교 리사이틀홀
- 2011. 03. 반주리사이틀, 북 텍사스 주립대학교 리사이틀홀
- 2011. 01. 박사리사이틀, 북 텍사스 주립대학교 콘서트홀
- 2009. 10. 박사리사이틀, 북 텍사스 주립대학교 리사이틀홀
- 2008. 석사리사이틀, 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윌리엄홀
- 2006. 김다정 피아노 독주회, 가람아트홀
- 2006. 음악교육 신문사 콩쿨 수상자 연주회, 영산아트홀
- 2006. 음악교육 신문사 주최 신인음악회, 영산 아트홀
- 2005. 김다정 피아노 독주회, 경희대학교 리사이틀홀
- 2004. 듀오리사이틀, 경희대학교 리사이틀홀
- 2000. 강지영 클래스 연주회, 부산문화회관
- 1999. 강지영 클래스 연주회, 가람아트홀

김다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PROGRAM NOTE

Schubert Fantasy in C Major, "Wanderer," D. 760, Op. 15 (1822)

2악장에 슈베르트의 가곡 '방랑자'의 선율이 나오므로 방랑자 판타지라고 이름 붙여진 이 곡은 1822년에 작곡 되어졌고 슈베르트의 피아노곡들 중 가장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곡으로 알려져 있다. 강약악의 리듬을 가진 (♩ ♪ ♫) 하나의 모티프가 계속 발전되어 나오면서 하나의 곡으로 연결시키며, 순환형식을 보여준다. 4개의 악장은 휴식 없이 연주 되어지는데, 1악장은 소나타 형식, 2악장은 바리에이션 형식, 3악장은 스케르초 형식으로 작곡되었으며, 4악장은 1악장의 재현부를 연상시키는 푸가토로 시작하여 강렬하게 끝이 난다.

2악장에 나오는 '방랑자'의 선율의 가사는 이러하다. "햇볕도 차고, 꽃은 시들었으며, 목숨은 피로하여 지쳐버렸다. 사람들의 말은 공허하게 들리고 나는 어디를 가나 아는 사람 없는 방랑자".

Beethoven Sonata No. 31 in A-flat Major, Op. 110 (1821)

Opus 110은 1816에서 1822년 사이에 작곡 되어진 베토벤의 마지막 5개의 후기 소나타 중 마지막 두 번째 소나타이다. 후기 소나타에서 베토벤은 기존의 소나타 형식의 틀을 깨는 더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자아 성찰적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기본적인 Tempo marking보다 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marking을 사용하였다. 이 소나타에서도 베토벤은 1악장에 Moderato cantabile, molto espressivo (보통빠르기로, 노래하듯이, 감정을 풍부하게), 3악장에 나오는 아리오조에 Klagender Gesang (애절한 노래), Arioso dolente (애절하게) 등을 Tempo Marking과 함께 적어놓았다.

또한, 후기 소나타에서 베토벤은 캐논과 푸가 같은 대위법 기법과 변주곡 형식을 사용하였는데, 31번 소나타에도 3악장에 두 개의 푸가가 포함되어 있다.

Opus 110은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두 번째 악장은 스케르초 형식으로 되어있다. 세 번째 악장은 느린 레치타티브로 시작하여 푸가, 다시 슬픈 아리오조, 그리고 두 번째 푸가로 끝이 난다. 이 소나타는 두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상행 또는 하행하는 병행 4도와 도약하는 6도이다. 또한 각 악장마다 다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1악장은 con amabilita (따뜻한 마음으로), 2악장은 유머러스한, 3악장은 고통과 탄식이다.

Rachmaninoff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 42 (1931)

라흐마니노프는 20세기 초 러시아 태생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후기 낭만파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1933년에 'La Folia' 곡을 주제로 변주곡 형식으로 작곡된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마지막 피아노 솔로 곡이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이 코렐리의 곡이라고 생각하였지만, 'La Folia'는 바로크 시대에 변주곡들의 주제로 많이 사용되어졌고, 코렐리도 이 주제를 사용하여 바이올린과 콘티누오를 위한 소나타에서 변주곡으로 작곡하였다.

20개의 바리에이션과 13번과 14번 사이에 인터메조와 마지막에 코다로 구성되어있는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화성과 선율, 화려한 기교와 풍부한 음향을 지닌 텍스처 등을 찾아볼 수 있다.